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Korean Authority Database System

오 동 근(Oh Dong-Geun)**

〈 목 차 〉

- | | |
|---|-------------------------|
| I 서 론 | 1.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성 |
| II 우리 나라 주요 도서관의 선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현황 분석 | 2. 선거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지관리 |
| 1. 일반적 현황 | 3.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베이스의 활용 |
| 2. 주요 선거시스템의 특징과 국가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 4. 선거레코드 설계와 활용에 대한 개선안 |
| III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의 방향 | 5. 기본적 서지도구의 정비 필요성 |
| | 6. 정책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 | IV.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의 표준적인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선거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도서관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선거통제업무는 일개 도서관이 수행하기에는 비용과 노력의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따를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국가선거시스템,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선거레코드, 선거통제, 한국표준선거데이터번호

Abstract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to suggest an ide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andard authority database system for Korean libraries. It analyzes in detail the current status of the major libraries in Korea operating authority system. Because the authority work is very hard for a library to accomplish for its costs and efforts neede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system through cooperative venture. It also investigates the problems to be followed and suggests the possible improvements for the system.

Key Words : authority control, KORMARC, KSADN, MARC

* 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원하는 "학술정보 선거DB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odroot@kmu.ac.kr

I. 서 론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전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거통제는 전통적인 목록에서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표목(heading) 또는 접근점(access point), 즉 인명과 단체명, 지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 등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시킴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거통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전통적인 목록시스템이나 학술정보시스템의 검색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목록시스템에서는 전거통제를 중요한 핵심업무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작업은 일개도서관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범위가 넓고 작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의 미국의회도서관(LC)이나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같은 국가의 대표도서관이나 미국의 OCLC와 같은 국제적인 서지유틸리티(Bibliographic Utilities)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상황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는 실제로 전거통제나 전거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KORMARC에서 전거용포맷이 KS로 지정되고,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부분적으로 전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거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전거통제가 사실상 이른바 “말뿐인 서비스”(lip service)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 전거통제업무는 그동안 전통적인 편목업무에서는 업무의 복잡성으로 등한시되었고, 그 자동화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과 각 개별도서관에서 이를 추진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 외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거통제의 필요성과 그에 관련된 일부의 연구성과들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전거의 필요성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주장에 묻혀 버리기 십상이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내의 도서관들이 어떤 구심체를 중심으로 상호협력에 의한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거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비교적 양호한 전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서울대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우리 나라 주요 도서관의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현황 분석

국내의 경우 대학도서관 등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에서는 전거통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구체적인 전거통제 현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거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대학도서관과 최근에 전거시스템을 시작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전거통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1. 일반적 현황

각 도서관의 전거통제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도서관의 전거DB시스템의 현황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시스템명	KOLIS	SOLARS	MAESTRO-Y	ELIS
시스템개발기관 (업체)	ECO	한컴데이터	삼보컴퓨터(오름정보)	자체개발
HOST 기종	Sun Enterprise 6500	Sun Enterprise 5000	Digital Alpha GS140	Sun Enterprise 5000, Alpha 540-2100
운영체제 DBMS	UNIX Oracle	Solaris, Unix Informix	Digital UNIX Oracle	UNIX, Open VMS Oracle
사용포맷	KORMARC	KORMARC(국내서) USMARC(외국서)	KORMARC	자체포맷
전거통제대상	개인명, 단체명, 표목 중 외래어 등 본래 한글이 아닌 문자를 읽어 표기하는 단어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인명주제명, 단체주제명, 지명주제명/ 전체표목, 단 단체 및 지명주제명은 참조값는 표목만	개인명, 단체명, 총서명, /참조값는 표목만
전거DB구축건수	약 48,000건	약 186,000건	약 390,000건	약 140,000건
서지DB구축건수	약 1,500,000건	약 870,000건	약 600,000건	약 850,000건
주요특징	소급변환계획중	전거레코드 내규지침, LCBib(A), OCLC(A)에서 다운로드후 한글읽기 입력; 일서, 중국서 로마자표기입력	그룹ID사용, 자체매뉴얼개발, 서지파일에서 추출	새 시스템으로 전환예정, 기존수작업참조기반, 현재는 화일구조

1) 이 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각 도서관의 담당사서와의 면담과 토론, 시스템시연 등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 어떤 잘못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유익한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면에서 협조해 주신 각 도서관과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김은수 선생님(연세대), 内藤衛亮 교수님(日本 NII), 박홍석 박사님(한국교육학술정보원), 原井直子 선생님(日本 國立國會圖書館), 이치주 선생님(국립중앙도서관), 황영숙 선생님(서울대), 현영애(이화여대)께 감사드린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4호)

1.1 시스템의 개요

주요 도서관의 선거DB시스템은 우리 나라의 주요 정보시스템개발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도서관토탈시스템의 일부로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도서관의 선거DB시스템은 이름은 다소 다르지만, 모두 도서관의 통합정보시스템의 목록시스템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다르지만, 시스템의 구성도 기본적으로는 선거의 생성과 선거의 조회, 선거의 수정 및 삭제의 기본적인 서브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선거통제의 작업은 서지DB의 작성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1.2 선거용포맷

목록의 자동화에 있어서 선거통제의 기본이 되는 선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지용포맷과는 별도의 선거용포맷이 필요하게 된다.

선거용포맷으로는 이화여대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 모두가 KORMARC 선거용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도서관의 경우는 외국서에 한해 USMARC 포맷을 사용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계획중인 이화여대만이 현재 자체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KORMARC 선거용포맷²⁾이 “KS X 6006-4”로서 우리 나라의 표준포맷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표준선거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포맷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주요 선거시스템의 특징과 국가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이 절에서는 주요 선거시스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과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³⁾

2.1 선거통제의 대상과 수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표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 즉 개인명과 단체명, 지명, 회의

2)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선거통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9

3) 이 소절의 분석은 주로 서울대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의 선거시스템을 위주로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선거시스템을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화여대도서관은 연세대학교도서관의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고, 곧 교체될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명, 통일서명, 주제명 등이 선거통제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 범위도 모든 표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참조를 갖는 표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그 대상의 범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각 도서관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지해야 할 선거통제의 수준(level of authority control)을 완전한 수준 또는 부분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즉 어떤 도서관은 목록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따라서 목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목록에 들어간 모든 새로운 표목에 대해 완전한 선거통제라는 이상을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도서관은 표목의 어떤 선택된 그룹이 통제를 위해 선택되는 부분적인 통제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통제의 수준에 대한 도서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⁴⁾:

- (1) 직원의 이용가능성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자원(인적/물적자원의 이용가능성)
- (2)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거레코드에 대한 접근
- (3) 요망되는 통제의 수준
- (4) 요망되는 통제의 수준에 대한 도서관의 통제
- (5) 목록의 완전성에 대한 중요도

우선 서울대학교도서관은 모든 표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대도서관에서는 개인명(예 1)과 단체명(회의명 포함)(예 2), 통일서명(예 3)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제명에 대해서는 아직 선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Doris Hargrett Crack. Authority Control: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nstructions. Chicago: ALA, 1990. p.31.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4호)

AID : 0000147906			
[001]	[]	[0000147906A]	
[005]	[]	19990702134519A]	
[008]	[]	990406ne acaaaabba	a ana da]
[090]	[]	5211032 y01 a338.9151053 bG997hi c1995-A]	
[130]	0	a계명대학교 도산학원대학 국제학술세미나]	
[430]	0	a啓明大學校・桃山學院大學 國際學術세미나]	
[430]	0	a계명대학교 Mcmoyama Gakuin Daigaku 국제학술세미나]	
[430]	0	a국제학술세미나 (계명대학교 도산학원대학)A]	
[642]	[]	a4 5211032 y	AID : 0000123200
[643]	[]	a서울 b啓明大	
[644]	[]	af 5211032 y	
[645]	[]	at 5211032 y	[001] [] [0000123200A]
[646]	[]	ac 5211032 y	[005] [] [20000925144534A]
[670]	[]	a韓・日의 社	[008] [] [980313ne acannaab a aaa da]
[999]	[]	aKPJ01-c01SQ	[110] [1] [a한국, b교육부A]
		(3)	[410] [2] [a교육부 (한국)A]
			[410] [2] [aKyoyukpu (Korea (South))A]
			[410] [1] [aKorea (South), bKyoyukpuA]
			[510] [1] [wa a한국, b문교부A]
			[670] [] [a교육부
			[] [] [a정부가
			[] [] [a67040
		(2)	[001] [] [0000125077
			[678] [] [a정부가
			[999] [] [a67040
			[001] [] [0000125077A]
			[005] [] [19991006171845A]
			[008] [] [980428ne acannaab
			[100] [1] [a김영항, d1903-1950A]
			[400] [1] [a金永郎, d1903-1950A]
			[400] [1] [a김윤식, d1903-1950A]
			[400] [1] [a金允植, d1903-1950A]
			[670] [] [a모란이 피기까지는A]
			[999] [] [a6704072041211 c63111
		(1)	

<그림 1> 서울대도서관의 전거레코드의 예

연세대학교도서관의 경우는 단체주제명과 지명주제명을 제외하고는 참조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표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명과 단체명, 회의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주제명 가운데 인명주제명과 단체주제명, 지명주제명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주제명에 대해서는 아직 전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도서관의 경우는 참조를 가지고 있는 표목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명과 단체명, 총서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제명에 대해서는 아직 전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도 참조를 가지고 있는 표목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명과 단체명, 통일서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제명에 대해서는 아직 전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거DB의 구축건수도 연세대도서관 약 390,000건, 서울대도서관 약 186,000건, 이화여대도서관 약 140,000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도서관의 경우는 전 표목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축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전거레코드에 대한 소급작업도 아직 시작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로컬수준의 각 도서관에서는 먼저 전거통제의 범위를 전 표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참조를 가진 표목만으로 한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거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그 대상도 개인명과 단체명, 지명, 회의명, 통일서명은 물론 주제명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선거DB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범위도 전 표목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수준을 유지하고, 그 대상도 개인명과 단체명, 지명, 회의명을 포함한 이름데이터는 물론 통일서명과 총서명, 주제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2 선거데이터의 소급입력

각 도서관의 선거시스템은 소급입력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서울대도서관의 선거시스템은 소급입력의 경우는 물론 새로운 선거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LCBib(A)와 OCLC(A)에서 선거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독음(讀音: pronunciation)을 비롯한 한국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하여 선거DB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세대도서관은 소급작업의 경우 기존의 서지파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거데이터를 추출한 바 있다. 이화여대도서관의 경우는 기존의 자체 수작업 참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선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소급작업을 시행하지 않아 그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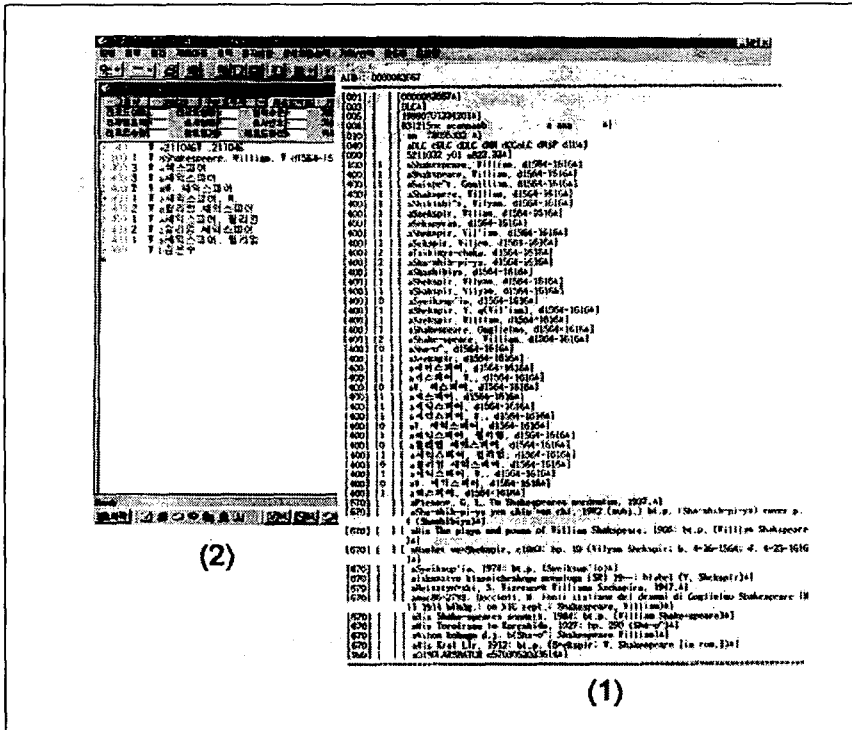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대도서관의 선거데이터베이스는 타 도서관의 데이터에 비해 훨씬 상세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하면 다른 도서관의 선거DB는 간략형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다만 서울대도서관의 경우 우리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포함 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결국 국가수준의 새로운 선거DB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도 소급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살리고, 그들이 구축해 놓은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3 선거레코드의 상세도

앞 소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 도서관의 선거레코드의 상세도는 상당히 다양하다.

우선 그 수준에서는 서울대도서관이 비교적 상세한 선거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들은 비교적 간략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 <그림 2>는 세익스피어에 대한 서울대도서관(예 1)과 연세대도서관(예 2)의 선거레코드의 상세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2> 셰익스피어에 대한 전거레코드 상세도의 비교

이와 같은 전거레코드의 상세도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반으로 삼은 데이터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거레코드의 내용에 대한 편목담당자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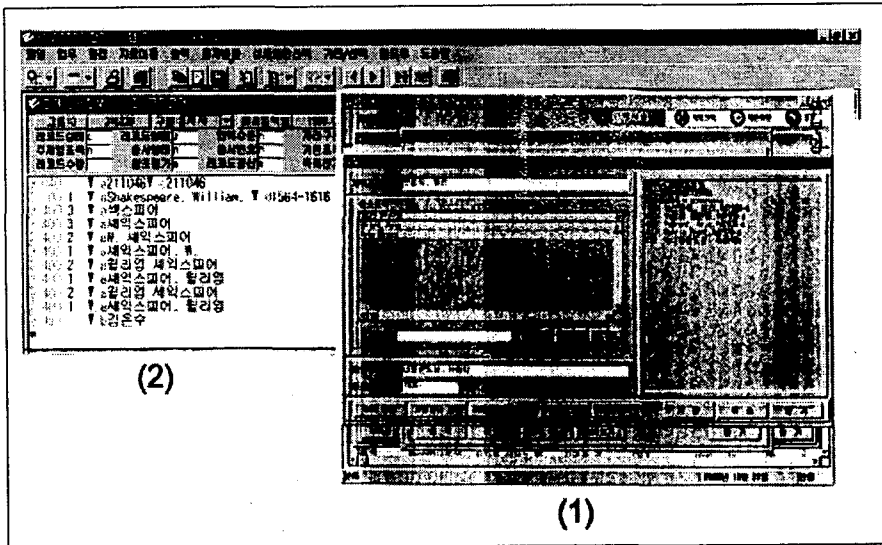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개별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로컬수준에서는 자관의 요구에 맞는 전거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예컨대 서울대도서관의 예(<그림 2>의 예 1)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거의 불필요해 보이는 “Saixpe'r, Gouilliam” 등과 같은 이형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새로운 전거DB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완벽한 수준의 레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간략형의 레코드보다는 다소 장황하더라도 상세한 레코드를 바탕으로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전거형의 선정문제

전거형의 선정은 전거통제에 있어서 각 도서관이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AACR2와 같은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규칙이 완비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30년 이상 된 한국목록규칙 제2판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한국목록규칙 제2판에 제시된 대로 한글형으로만 표목을 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국인명이나 일본인명의 표기는 현지음으로 표시할 것인지, 한자음으로 표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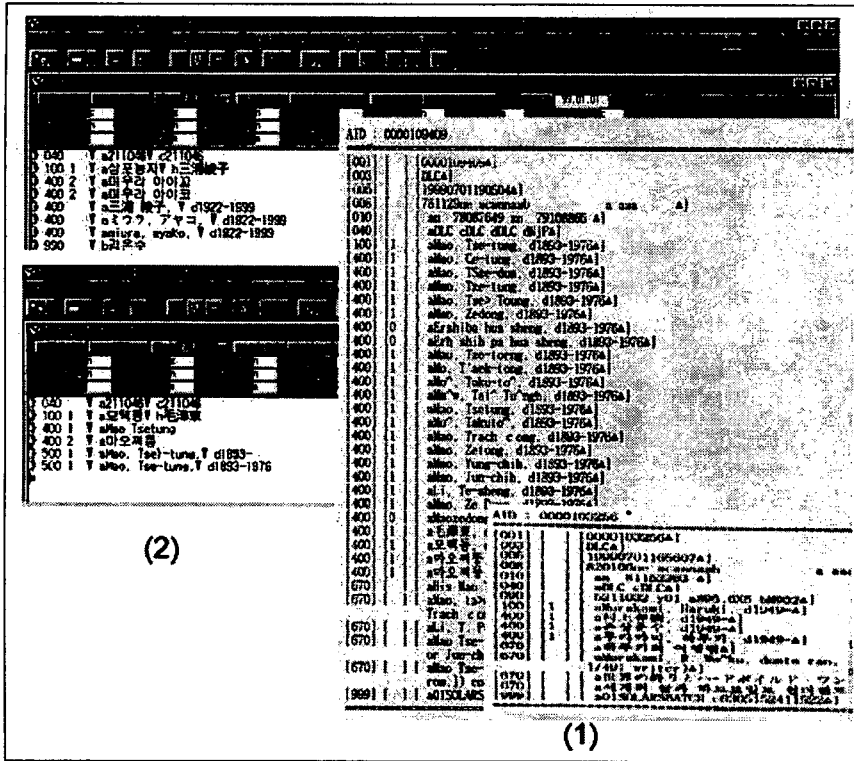
<그림 3>은 서양인명의 전거형(100)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예 1)과 연세대도서관(예 2)의 레코드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3> 서양인명에 대한 전거형(100)의 비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KCR2의 규정에 따라 모든 서양인명의 한글형을 전거형으로 삼고 있는 반면, 연세대도서관에서는 영문표기를 전거형으로 삼고 있다. 이화여대도서관과 서울대도서관의 경우도 영문표기를 전거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아마도 이것은 서양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림 4>는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전거형(100)에 대한 서울대도서관(예 1)과 연세대도서관(예 2)의 레코드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4>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에 대한 전거형(100)의 비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대도서관은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전거형으로 영문표목을 채택하고 있고, 연세대도서관은 한글표목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도 한글표목을 전거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지음을 전거형으로 채택하고 있어, 두 도서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로마자형의 영문표기를 사용하든 한글표기를 사용하든, 어느 경우에도 어떤 방식의 로마자테이블(Romanization table)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음이나 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본인명을 수정헵번식(modified Hepburn)으로 표기할 것인지 훈령식헵번식으로 표기할 것인지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당연히 AACR2와 같은 최신화된 통일된 편목규칙의 부재에 기인하고, 아울러 그에 따르는 LC Rule Interpretation과 같은 적용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표목부를 갖춘 편목규칙의 마련이 시급하고, 그에 따르는 적용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설사 이런 규칙이 생기더라도, 다양한 관례에 따라 작성된 엄청난 양의 전거레코드

를 소장하고 있는 로컬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표준과 관례를 따를 경우에 수반되는 전거레코드는 물론 서지레코드에 대한 방대한 변환작업으로 인해, 자관(自館)의 관례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표준화작업은 전거레코드가 조금이라도 덜 축적되었을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수준의 전거DB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관례에 신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 살펴보게 될 한국표준저자번호(KSAN : Korean Standard Author Number)나 한국표준전거데이터번호(KSADN : Korean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를 이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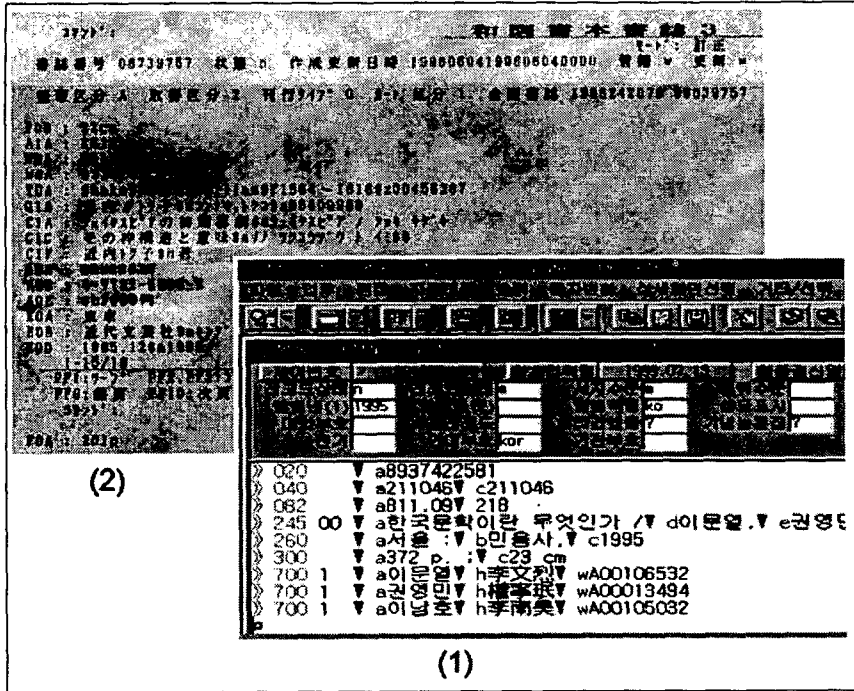
2.5 서지레코드와의 연결

전거레코드를 위한 전거레코드는 인명이나 단체명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지통제적 측면에서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전거레코드는 서지레코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서지레코드는 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작성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전거데이터베이스의 각 레코드들은 서지레코드와의 효과적인 연결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의 도서관들도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도서관의 경우는 전거레코드를 서지레코드와는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거레코드와 서지레코드의 연결은 표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이화여대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세대도서관의 경우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요소들과 해당전거레코드를 전거레코드에 대한 그룹기호(예 1)로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JAPAN MARC(예 2)의 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차후의 일괄변환 등의 면에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KSADN(Korean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와도 관련이 있다.



<그림 5> 선거레코드의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연세대와 JAPAN MARC 서지레코드의 예

아울러 서울대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서지레코드의 기술부에서 선거대상데이터를 입력할 때, 각 데이터와 선거키워드파일을 연결하여 해당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형 표목을 찾아 이를 해당 표목부에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key stroke을 줄여줌으로써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key stroke에 따르는 에러(error)의 가능성도 감소시켜 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도서관의 시스템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현재는 어느 도서관도 현재의 선거DB시스템을 서지정보에 대한 검색에 직접 연결하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세대도서관에서는 "꼬리물기"검색이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개인명의 경우 동명이인 등이 많은 동양의 서지자료를 검색할 경우, 선거정보를 활용하면 그 식별성을 높일 수가 있어 부적합문헌의 출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선거파일을 서지정보의 검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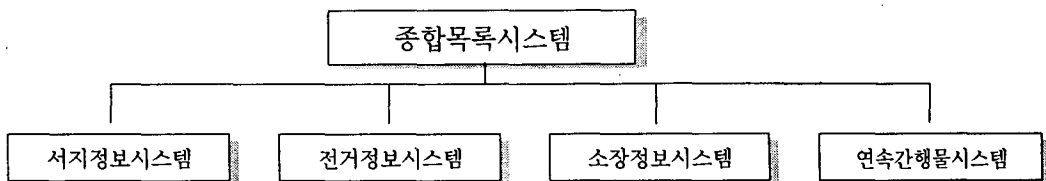
III.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의 방향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특히 선거통제는 일개도서관에서 실시하기에는 비용 효과적 측면이나 품질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협동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PCC와 NACO(Name Authority Component of PCC)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⁵⁾

다음에는 앞 절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성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종합목록시스템의 한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목록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서지정보(Bibliographic information)는 물론 선거정보(Authority information), 소장정보(Holding and location information), 연속간행물정보(Serials information)를 포괄하는 토달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각각의 정보들은 그 유형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선거정보 가운데 이름선거(Name authority)와 주제명선거(Subject authority)는 그 성격이 역시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장차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도서관이 주제명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이름선거를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점차 주제명선거의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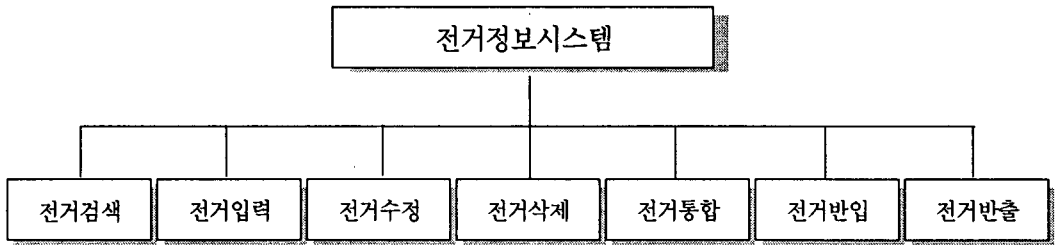


<그림 6> 종합목록시스템의 구성도

5) 미국의 PCC와 NACO에 대해서는 오동근, 여지숙. 선거통제를 위한 상호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 특히 미국의 NACO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2000.9). pp.23-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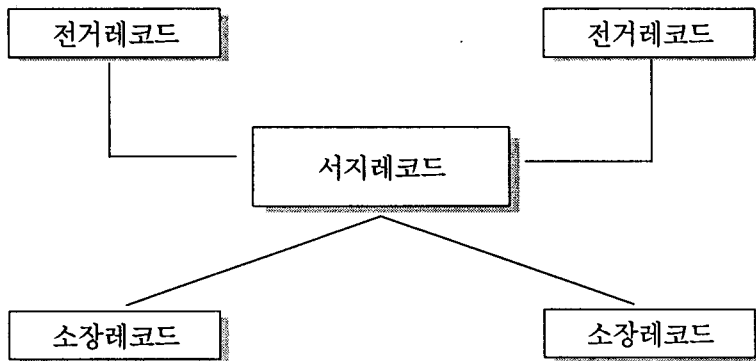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4호)

아울러 선거정보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기본적으로 선거검색, 선거입력, 선거수정, 선거삭제 등의 서브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시스템이 상호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선거통합과 선거반입, 선거반출 등의 서브시스템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 선거정보시스템의 구성도

한편 종합목록시스템상에서의 서지레코드와 선거레코드, 소장레코드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서지레코드와 선거레코드, 소장레코드의 관계에 관한 개념도

이 개념은 하나의 서지레코드에 그에 해당하는 선거레코드와 소장레코드가 별도의 서브필드를 통해 링크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센터에서 유지하는 종합목록의 서지레코드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의 서지레코드만 작성하는 표준서지레코드로 관리하고, 그 표준서지레코드에 선거레코드와 각 로컬도서관의 소장사항을 링크시키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목록을 통한 검색시, 동일한 자료나 동일한 저자나 단체명, 주제명 등에 대해 비표준적으로 작성된 서로 다른 기관의 서로 다른 서지레코드로 인해, 엄청난 부적합문헌의 소장사항을 반복적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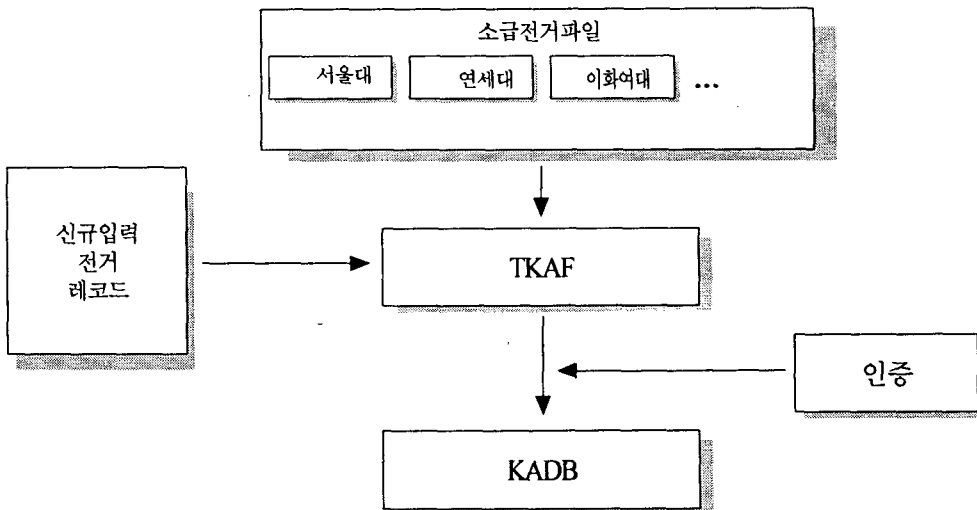
그림에서 선거레코드와 서지레코드는 각 선거레코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인 KSADN (Korean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을 통해 연결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KSADN 은 해당선거레코드의 유일한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동시에 한글형(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이나 로마자형(예를 들면 Shakespeare, William), 현지음(예를 들면 마오쩌둥)과 한자음(예를 들면 모택동)과 같은 서로 다른 선거형의 선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선거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SADN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선거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지관리

선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단일의 로컬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어느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도 여러 면에서 벅찬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은 어느 한 기관을 센터로 하여 여러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족하기는 하지만 서울대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등 국내의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이미 이름데이터의 선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측면에서, <그림 9>와 같은 방식의 선거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9> 상호협력에 의한 선거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념도

이 개념도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1) 초기단계에서는 서울대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등 대학도서관에서 이미 구축한 전거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임시전거파일(TKAF: Temporary Korean Authority File)을 작성한다. 이 때 각 대학 전거레코드 가운데 중복되는 레코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TKAF의 각 전거레코드는 선정된 핵심도서관(예를 들면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동목록시스템의 경우 “가”군도서관)의 전문가(Liaison)의 인증을 통해 검증을 받은 후 국가 전거데이터베이스(KADB: Korean Authority Database)에 편입시키도록 한다.

(3) 신규전거레코드는 선정된 주요도서관(예를 들면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동목록시스템의 경우 “가” 및 “나”군도서관)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TKAF에 편입시키고, (2)항과 같은 검증을 받은 후 KADB에 편입시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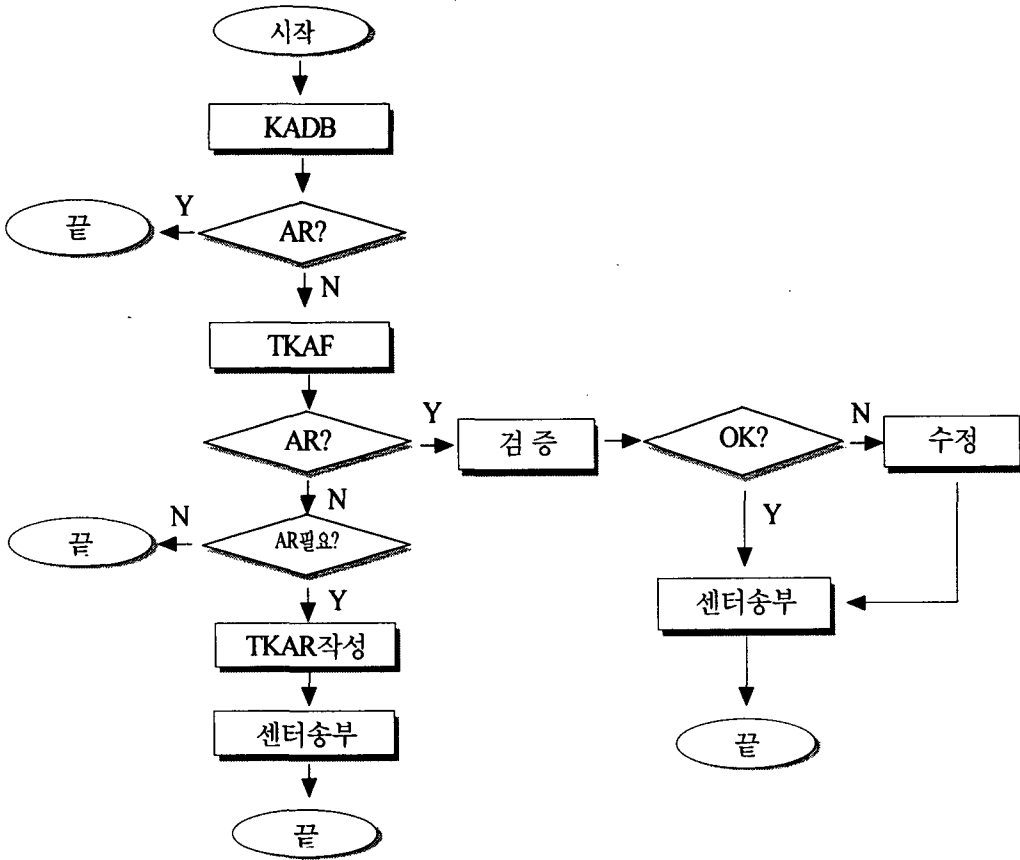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센터는 전거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조정, 관리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3. 로컬도서관의 전거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로컬도서관에서의 전거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은 도서관이나 기관의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주 소규모의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전거파일을 유지하지 않고, 단지 센터의 전거데이터베이스만을 참조하여 표목을 부여함으로써, 표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규모가 큰 도서관이라면, 자체의 전거파일을 유지하면서 서지레코드와의 연계를 통해 전거레코드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의 전거레코드는 수시로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운로드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새로운 전거레코드를 센터에 제공하거나 TKAF의 전거레코드를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각 로컬도서관은 <그림 10>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센터의 전거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10> 로컬도서관의 센터선거데이터베이스 활용의 흐름도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센터의 KADB(Korean Authority Database)에 선거레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그 선거레코드를 그대로 다운로드하고, 필요할 경우 자관의 실정에 맞도록 변환하여 사용한다. 센터로부터 선거레코드를 다운로드만 받는 도서관이나 기관의 경우는 원하는 선거레코드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도 더 이상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 KADB에 원하는 선거레코드가 없는 경우는 임시선거파일(TKAF: Temporary Korean Authority File)을 검색한다.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검증의 자격을 가진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이를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센터로 송부한다. 검증이 끝난 TKAF의 선거레코드는 센터에서 KADB에 포함되도록 한다.

(3) TKAF에도 없는 경우에는 선거레코드(AR: Authority Record)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시선거레코드(TKAR: Temporary Korean Authority Record)를

작성하여 센터로 송부한다. 이렇게 송부된 입사전거레코드는 센터에서 TKAF에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전거통제는 지금까지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면에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많은 로컬도서관에서 손쉽게 전거레코드를 확보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장서선택과 장서개발을 통해 아무리 값비싸고 중요한 장서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검색해 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과 경비가 무의미해 진다는 평범한 사실에 비추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4. 전거레코드 설계와 활용에 대한 개선안

이 연구에서는 전거레코드의 설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문자와 표기법의 문제

문자와 표기법의 처리 문제는 전통적인 목록과 서지용포맷은 물론 전거용포맷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자료의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면서도 항상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서지용포맷의 경우에는 같은 동양삼국의 경우에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KORMARC의 경우에도 충분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⁶⁾ 특히 표목을 한글로 표기한다는 한국목록규칙의 원칙에 따라 서지용포맷에서 표목을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수많은 동명이인이나 동의어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전거용포맷의 경우에는 한자처리의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KORMARC 전거용포맷에서 개인명에 대해 한자표기 서브필드(▼h)를 추가한 것은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거데이터에 나타나는 한자데이터는 별도의 전거데이터라기보다는, 특히 인명의 경우는 생몰년과 함께 전거표목을 한정하는 수식어의 성격이 강하다⁷⁾는 점에서도, 타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Jeong Pil-mo and Oh Dong-geun, The influence of pronunciation and scripts in East Asian MARC formats. *International Catalog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20(4) (1991)

7) 오동근, 전거레코드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1994). pp.80-81.

아울러 동양인명의 로마자화표목과 관련해서도, KORMARC의 서양인명에 대한 예와 마찬가지로, 한글표기를 전거형(1XX)으로 삼고 로마자표기는 단순한 이형이나 참조(4XX)로 취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동양인명이나 주제명, 서명에 대해 로마자표목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포맷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2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한 서브필드의 문제

특히 한국인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식별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전통적으로 동명이인의 식별요소로 사용되어 온 것은 생몰년(生沒年)이다. 이 요소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선호되어 오고 있다. KORMARC의 경우도 ▼d 생몰년 서브필드를 설정하여 이와 같은 관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생몰년은 편목자나 이용자 양편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 편목자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생몰년이 자료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조차 많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아울러 생존저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매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저자의 생몰년을 기억하여 동명이인을 식별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몰년은 유일한 식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인명의 경우 또 하나의 식별요소가 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한자표기 서브필드(▼h)이다. 이것 또한 전통적인 편목의 관례를 반영한 것이지만, 생몰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저자의 생몰년이나 한자표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점에서 연구자는 식별을 위한 새로운 서브필드로서 해당저자의 활동분야를 별도의 서브필드를 추가하기를 권고한다.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자 “김남석”의 출생년이나 한자표기 “金南碩”을 기억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그가 문헌정보학자라는 사실을 그의 자료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라면 거의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KDC의 100구분의 주제구분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자도 있을 것이므로, 이 서브필드는 반복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서브필드를 사용한 개인명 전거형표목을 예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100 1b ▼a김소월=▼h金素月, ▼d1903-1934, ▼o한국문학

<그림 11> 새로운 서브필드가 추가된 개인명 전거형표목의 예시

4.3 유일한 식별을 위한 표준기호의 도입 문제

전거레코드와 관련하여, 유일한 식별을 위해서는 각 저자에 대하여 별도의 표준저자기호, 말하자면 일종의 KSAN(Korean Standard Author Number), 전체 전거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일종의 한국표준전거데이터번호, 즉 KSADN(Korean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것은 국내의 경우도 이미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저자에 대한 기본기호의 대안으로 별도의 그룹기호를 주고 있고,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도 저자는 물론 주제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거기호를 부여하고 있는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IFLA에서는 이미 ISADN(International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⁸⁾ Snyman과 Rensburg⁹⁾도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thor Number)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4.4 서지레코드와의 연결의 문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거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지용 포맷의 접근점필드에 기록되는 저자사항과 서명사항, 주제명사항 등의 데이터들로서, 당연히 여러 서지레코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기록의 작업을 줄이고, 데이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제어 데이터를 전거파일(authority file)이라는 별도의 파일에 서지데이터와는 별도로 기록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때 전거파일에 기록되는 통제어의 레코드, 즉 전거레코드는 서지파일에 기록된 서지레코드와 식별번호에 의해 연결되게 된다.

8) 오동근. “전거레코드의 작성에 관한 연구: 특히 GARE의 한국적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7집(1994.12). pp.75-97.

9) M.M. Snyman and M. Jansen van Rensburg. NACO versus ISAN: prospects for name authority control. The Electronic Library 18(1) (2000). pp.63-68.

이와 같은 연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¹⁰⁾

첫째는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서지파일을 작성할 때마다 전거파일을 참조하여 전거형의 저자명을 매번 별도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실수 등이 따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을 별도로 구축하기는 하지만, 서지파일의 표목부분 입력시에 해당저자명이 전거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전거형의 저자명을 해당표목으로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전거파일을 생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 번째는 전거파일이 서지파일의 일부분으로서 구축되는 형태로, 표목의 전거형을 서지파일내에 두고 전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이 직접 접속되어 구축되는 형태로, 서지파일의 표목부분에는 전거파일의 제어번호만을 기록하여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서지파일에 전거번호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거레코드의 변경시 일괄변환(global change)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채택은 각 도서관의 정책과 컴퓨터 용량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KORMARC 포맷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앞서 언급한 KSAN 또는 KSADN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물론 서지용포맷과의 연결은 이 번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서지용포맷에는 이 서브필드가 별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괄변환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4.5 정도율 제고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활용 방안

검색에 있어서 정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거레코드를 서지레코드의 검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거키워드파일을 서지레코드의 검색에 활용하는 것도 아주 유의할 것이다. 이는 특히 동명이인이 많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 특히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서지레코드의 저자명 검색에서 “박준식”을 검색하면, 기존의 대부분의 검색시스템에서는 “박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저자의 저작이 혼재되어 검색된다. 그러나 전거키워드파일을 통한 검색을 할 경우는 우선 <그림 12>과 같은 화면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

10) 이치주. KORMARC 전거통제포맷을 이용한 전거통제시스템 설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1986. pp.16-17.

박준식 朴俊植 1948-	문헌정보학	15
박준식 朴俊植 1951-	수학	6
박준식 朴俊植 1958-	공학	3
박준식 1948-	의학	17
박준식 1960-	사회학	11

<그림 12> 전거키워드파일을 활용한 저자명검색화면의 예

이제 이용자는 이 화면의 다섯 명의 박준식 가운데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저자의 데이터에 바를 가져다 두고 엔터만 누르면 본인이 원하는 저자의 저작만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거키워드파일을 통해 저자별로 분류된 저작들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은 단지 “박준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부적합문헌을 포함한 52건의 모든 자료를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검색의 정도율을 현격하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화면의 인물들은 실존인물에 관한 데이터들로, 한자(漢字)까지 동일하여 출생년만으로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저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예는 이미 앞서 제시한 전공분야별 서브필드의 추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5. 기본적 서지도구의 정비 필요성

앞서 우리 나라 도서관의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거통제는 기본적으로 서지레코드의 표목부분에 사용되는 개인명과 단체명, 회의명, 지명, 통일서명, 주제명을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목록의 서지적 기술에 대한 규칙은 들쭉 -- 한국목록규칙 제3판과 KORMARC 기술규칙 -- 이나 되면서, 정작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은 정비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채 3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록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술이나 식별이 아니며, 검색이 있는 후에 식별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규칙의 정비에 무관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앞장

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각 기관마다 별도의 관례를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서는 표목의 데이터가 형식이나 표기법 등에서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기술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선거통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영미편목규칙(AACR2)과 같이, 표목부를 갖춘 편목규칙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이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와 같은 규칙은 모든 도서관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점에서, 공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LCRI(Library of Congress Rule Interpretation)과 같은 별도의 전자작성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주제명선거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주제명표목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거의 모든 사서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하루 빨리 그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정책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센터를 중심으로 협동적인 노력에 의해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동목록시스템을 통하여 서지정보의 활용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참여회원기관의 협동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센터는 그와 같은 회원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거레코드의 입력과 검증, 사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원도서관을 그 규모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권한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1) “가”군 도서관 (5-10개관): 선거레코드의 다운로드와 물론 새로운 선거레코드의 입력과 아울러 타 회원도서관에서 입력한 선거레코드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KADB) 운영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도서관들이 새로이 입력한 선거레코드는 임시선거파일(TKAF)에 수록되며, 이 도서관들의 검증을 거친 TKAF의 선거레코드는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2) “나”군 도서관 (100개관 내외): 선거레코드의 다운로드와 아울러 새로운 선거레코드의 입력을 담당한다. 이 도서관들이 새로이 입력한 선거레코드는 임시선거파일(TKAF)에 수록되며, “가”군 도서관의 검증을 거쳐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KADB)에 포함된다.

(3) “다”군 도서관 (기타도서관 전체): 선거레코드의 다운로드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만 선거레코드 입력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우수한 수준의 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만 검증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레코드의 품질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도서관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지적해 두고 싶다. 이미 자체의 선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 도서관들은 지금까지 거의 어떠한 외부의 지원도 없이 거의 전적으로 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를 구축해왔다. 만일 이와 같은 선거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추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도서관에 대해 어떤 형태의 유형, 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와 같은 도서관의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의 전문가들에게 책임 있는 직위(예를 들면 liaison과 같은)를 부여하고, 그들의 소속도서관에 대해서도 그들의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선거시스템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상호협력은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호협력시스템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사 그들이 어떤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적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IV. 결 론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의 표준적인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선거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도서관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선거통제업무는 일개 도서관이 수행하기에는 비용과 노력의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따를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기본아이디어는 이미 구축된 다른 도서관의 선거레코드를 바탕으로, 소급입력을 통해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의 임시파일(TKAF)을 구축하고, 이를 보완과 검증과정을 통해 국가선거데이터베이스(KADB)로 편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호협력에 의한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운영기관(센터)는 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의 표준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표준선거데이터번호(KSADN)를 통해 관련된 각각의 해당 선거레코드와 링크시켜 선거통제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 도서관의 소장 레코드와도 링크시켜 주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도움으로, 이용자들은 선거통제를 통해 엄격한 품질이 관리되는 센터의 표준서지레코드를 통해 상호협력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도서관의 소장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거통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높은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은 서지데이터의 품질을 제고시키고, 검색의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많은 노력과 비용을 통해 입수한 소중한 장서의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통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표목부를 갖춘 편목규칙의 정비와 그에 따르는 각종 지침들의 개발, 진정한 의미의 주제명표목표의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JAPAN/MARC 著者名典據マニュアル. 第1版.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97.
- 권수미. 수작업선거제어와 자동선거제어의 비교연구: 저자명선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1989.
- 김경대. “로컬선거통제: 그 주요현안에 대하여”. 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창립 10주년기념논문집. 1993. pp.219-234.
- 도태현. “자동화목록에서의 선거통제”. 도서관학논집 제18집(1991). pp.217-234.
- 신민정. 자동선거통제시스템에서의 선거데이터 작성과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1992.
- 오동근. “선거통제에 관한 편목이론적 고찰”, 《도서관》 제49권, 제3호(1994). pp.31-43.
- 오동근. “선거레코드의 작성에 관한 연구: 특히 GARE의 한국적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7집(1994.12). pp.75-97.

- 윤구호 등저. 전거용 KORMARC 형식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 이병기. "KORMARC를 위한 자동전거화일의 기초적 설계". 청량정필모박사학갑기념논문집 (1990). pp.681-717.
- 이치주. KORMARC 전거통제포맷을 이용한 전거통제시스템 설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1996.
- 조옥현. 전거화일구조에 관한 연구: 특히 중소규모 도서관용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1994.
- 조재인, 한혜영, "일본과 한국의 대학도서관종합목록 시스템 운영 현황 비교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NACSIS와 KERIS를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41(3) (2000. 5-6). pp.37-45.
- 최석두. "무전거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5집 (1993. 12). pp.233-264.
- Authority Control symposium: Papers presented during the 14th Annual ARLIS/NA Conference New York, N.Y. February 10, 1986. Edited by Karen Muller. Occasional paper no.6 Tucson, Ariz,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1987.
- Bangalore, Nirmala S., et. al., "Authority work in copy(derived) cataloging: a case study",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 15, no.4(1998). pp.39-56.
- Brunt, Rodney M., "From main entry to work authority record: development of a cataloguing fundamental", *Library Review(Glasgow, Scotland)*, Vol.48, no.7(1999). pp.328-336.
- Burger, Robert H. *Authority work: The creation use, maintenance, and evaluation of authority records and files*, Littleton, Colorado, 1985.
- Clack, Doris Hargrett, *Authority control: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nstructions*. Chicago, ALA, 1990.
- Danskin, Alan., "International standards in authority data control: costs and benefits", *International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ol. 26(Apr./June 1997). pp.31-34.
- Danskin, Alan., "The Anglo-American authority file: an idea whose time has come?", *International Catalog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ol. 25(July/Sept. 1996). pp.57-59.
- Danskin, Alan., "The Anglo-American authority file: implementation of phase 2", *International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ol. 27, no.4(Oct./Dec. 1998). pp.72-73.
- Dzhigo, Alexander Aleksandrovich., and others, "Automated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creation of authority databases", *International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ol. 25(Oct./Dec. 1996). pp.75-76.

- Ghikas, Mary W. Authority control: The key to tomorrow's catalog: Proceedings of the 1979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Institute. Phoenix, Oriz, Oryx Press, 1982.
- Greever, Karen E., "A comparison of pre- and post-cataloging authority control",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41(Jan. 1997). pp.39-49.
- Kuhagen, Judith A., "Standards for name and series authority record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1, no.3-4(1996). pp.131-154.
- Riemer, John J. and Morgeroth, Karen, "Hang together or hang separately: The Cooperative authority work component of NACO",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7 No.3-4 (1993). pp. 127-161.
- Snyman, M. M. M., et. al., "NACO versus ISAN: prospects for name authority control", *The Electronic Library*, Vol. 18, no.1(2000). pp.63-68.
- Snyman, M. M. M., et. al., "Reengineering name authority control", *The Electronic Library*, Vol. 17, no.5(Oct.1999). pp.313-322.
- NACO 홈페이지 (<http://lcweb.loc.gov/catdir/pcc/naco.html>) 2000.8.14.
- PCC 홈페이지 (<http://lcweb.loc.gov/catdir/pcc/>) 2000.8.14.